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한국교회에 새 기운을 부으소서”

목회자신학세미나 제 10학기 내일 개강

우리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 (KIMCHI / 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이 전국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목회자신학세미나 제 10학기가 내일(9월 2일) 오후 2시 강남 YMCA대강당에서 개강한다. 11월 4일까지 10주간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이 세미나는 제 1교시(오후 2시 ~ 3시 30분)에는 이종윤 목사가 로마서강해를, 제 2교시(3시 50분 ~ 5시 20분)에는 ‘급변하는 사회와 목회자윤리’ (박동현 박사), ‘향락적 사회현상과 윤리적 위기’ (차경수 박사), ‘환경운동과 교회의 역할’ (김정옥 박사), ‘영적 전쟁’ (로간 박사), ‘소비문화와 한국경제’ (서상목 박사), ‘기독교 신앙과 전통윤리’ (김중기 박사), ‘명의상 교인과 한국교회’ (신국원 박사), ‘복음과 상황’ (김지철 박사), ‘예배의식과 교회’ (알렌 박사), ‘세계복음화와 그리스도의 재림’ (최재덕 박사) 등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룬 강사들의 강의가 있게 된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는 한국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려면 먼저 강단이 새로워져야 하며, 강단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강단을 책임진 목회자들의 영성개발과 성장을 돕는 일이 필요하다고 여겨 지난 1992년 3월에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시작하였다. 지난 9학기동안 본 연구원에서는 ‘설교와 목회’,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교회갱신과 목회’, ‘급변하는 사회와 교회갱신’, ‘목회자의 경건과 설교’, ‘강해설교와 영적갱신’, ‘경건과 교양’, ‘목회와 영성’, ‘현대교회와 인성회복’, ‘현대사회와 교회’ 등 한국교회 갱신에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총 9학기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학기 7백 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학세미나에서 우리 주변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함께 연구하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효과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온 것이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때에 한국교회의 제문제를 신학적으로 조명하여 새 기운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또한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는 네 학기를 수료한 목회자들로 동문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와 기도협력을 통해 교회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폭넓은 목회를 위한 발전방향을 탐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강사나 강의에 참여하는 전국에서 오는 목회자들 뿐 아니라 봉사자들의 크고 작은 수고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식사준비 및 배식, 집꾸리고 이동하기, 강의실 의자 설치, 방송실 점검, 주차안내 및 차량관리안내, 등록 접수, 테이프, 서적 판매 및 관리, 청소, 등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봉사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관을 한국교회에 확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 1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일정

일시	제 1 교시 14:00 - 15:30	제 2 교시 15:50 - 17:20
9/ 2	로마서강해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급변하는 사회와 목회자 윤리 - 박동현 박사 (장신대)
9/ 9		향락적 사회현상과 윤리적 위기 - 차경수 박사 (서울대)
9/16		환경운동과 교회의 역할 - 김정옥 박사 (서울대)
9/23		영적 전쟁 - S.T. 로간 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
9/30		소비문화와 한국경제 - 서상목 박사 (국회의원)
10/ 7		기독교신앙과 전통윤리 - 김중기 박사 (연세대)
10/14		명의상 교인과 한국교회 - 신국원 박사 (총신대)
10/21		복음과 상황(Text and Context) - 김지철 박사 (장신대)
10/28		예배의식과 교회력 - H. 알렌 박사 (보스톤대)
11/ 4		세계복음화와 그리스도의 재림 - 최재덕 박사 (서울여대)

“봉사자계선 반드시 대중교통을”

목회자신학세미나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 중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세미나가 개최되는 강남 YMCA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지하철차장 뿐이기 때문이다.

지난학기까지만 해도 세미나 참석자들은 인근 아파트단지 등 주변에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학기는 사정이 여의치

못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세미나 기간 중 큰 혼잡이 예상되고 있어 주최측에서는 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목회자세미나 봉사자들은 자가용 사용을 자제하고 될 수 있는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모여 차량을 함께 이용해 세미나장으로 이동하면 될 것이다.

창세기
강해



하나님...하나님...하나님...

(창세기 45장 1~9절)

이종윤 목사

요셉의 일생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애에 항상 함께 계셨고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나왔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 하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투옥생활 중에 바로왕의 관원장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해 근심하자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고 꿈을 해석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맏아들 므낫세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둘째아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5번 언급되면서 이같은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과거를 용서할 수 있었고 오히려 도울 수 있었습니다.

1. 악의 문제에도 관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중심의 삶은 가볍게 취급될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요셉에게 왔던 고통과 역경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의 악을 알고 계셨고 그들이 거기서 돌이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악한 계획과 행위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며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사탄의 계획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과 연관되어 그것을 다스리시는가에 대한 질문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無所不在)하신 분이므로 모든 것을 알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악의 한계를 정하시고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요셉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일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2.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요셉은 악한 것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극을 통해서도 선하신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자기 인생 전부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는 악이 아닌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의 행위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음탕한 마음과 거짓말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그결과로 2년이나 옥에 갇힌 것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바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2년간 요셉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죄수이자 노예신분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통을 통해 형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하셨습니다.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악한 자에게까지 혜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 까닭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으며, 야곱 까닭에 라반의 집을 번성케 하셨고 바울 까닭에 로마로 가던

276명이 풍랑 속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3. 용서와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만일 그가 자기가 당한 고통의 책임 소재를 묻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형들을 용서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울 때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선을 생각하면 분노를 풀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도 반복하여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인도 교회도 역사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 순례자 컬럼 ✦

“위기와 신앙”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최대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성자다.

예수님은 노도와 풍랑이 이는 갈릴리의 위기상황에서도 고물에서 배개를 베고 태연히 주무셨다. 자연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에게 닥쳐온 최대의 위기관 오히려 그에게 최대의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최대의 능력 앞에 있으면서도 최대의 불신으로 떨고 있었다. 주님의 능력보다는 풍랑의 위력 앞에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한 인간은 불안에 떨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대의 난국에는 최대의 신앙이 요구된다. 캄캄한 밤일수록 등불이 필요하고 험준한 고개일수록 지팡이가 요구되듯 큰 위기를 맞이한 자마다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이 문제임을 깨닫게 하소서.

※ 지상강좌

“교회는 대중문화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이글은 지난 5월 20일 제 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전대련 박사가 강연한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임 ■

대중문화

문화(Culture)라는 단어는 토양이나 식물을 경작(Cultivation)한다는 데에서 유래하여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 그리고 그밖에 사회의 구성원이 인간에 의해 획득되고 형성된 능력과 습관 등을 포함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

현대인들은 대중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대중매체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대중매체에 의하여 전달되는 모든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다.

대중문화의 특성

첫째, 대중문화는 새 것이 낡은 것보다 좋으리라는 개념에서 새로움을 요구한다는 것과, 즉각적인 만족을 바라는 특징이 있다.

둘째,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대표적인 현상 중의 하나는 일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가치규범을 제공해준다는 점이다.

셋째, 대중문화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논리의 지배를 받는다.

넷째, 대중문화는 우리고유의 문화적 정체성과 정신마저 파괴할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대중문화를 통해 문화적 종속(從屬)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현실

우리나라에서의 대중문화 발전은 거의 절대적으로 대중매체에 의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별히 전자매체는 무소부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다. 그것들은 전능하진 않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사회적 힘을 가지고 있다. 전지(全知)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지식의 원천이 되고 있다. 영원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대중매체는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바람과는 달리 많은 역기능을 도출하고 있기에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대중문화를 악한 것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다. 지금 우리나라 사

람들이 하루에 평균 3시간이나 TV 시청을 하고 있다는데, 작년부터 30여개의 유성방송이 또 생겨났으니, 앞으로 시청시간은 더 늘어날 것이다.

대중문화에 대한 교회의 시각

첫째, 현재 한국의 교회는 '이분법적인 흑백논리 사고관'에 젖어 있는 듯하다. 교회는

대중문화와 교회의 역할

교회가 대중문화에 대해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손가락질하는 동안에 우리의 문화는 상업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면서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문화가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의 가치관, 생활양식, 태도와 의식성향 등 모든 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대중문화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문화비판운동을 포괄하는 '기독교문화운동'의 전략을 세우고 범교회적인 문화선교운동을 전개해가야 할 것이다.

첫째, 문화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신학적 이해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둘째, 향락문화 추방운동, TV 등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과 시청자 시민운동 등 매체비판활동은 물론, 각종 문화상품에 대한 평가와 비평

활동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수용자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다양한 문화현상들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기할 수 있는 훈련된 교사를 양성하고 올바른 문화 생산자들을 만들어내고 문화소비자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다.

끝으로, 교회가 대중문화의 긍정적 요인을 찾아 새로운 선교전략을 수립토록 해야한다.



우리 모두가 대중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서 교회가 대중문화의 긍정적 요인을 찾아 새로운 선교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문화 외의 세속문화에 대해서는 이를 무조건 백안시하는 경향이 있다. 좀 더 심한 경우에는 대중문화를 사탄 정도로 취급하곤 한다.

둘째, 이와 연관되는 것이지만, 교회의 문화 내에는 사회성이나 역사성이 많이 약화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영성문화만이 교회문화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주되고 있다.

셋째, 우리의 교회문화 내에는 이국적인 사고관이 팽배해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중심의 문화라기보다는 서구 중심의 문화가 교회문화의 주류적인 성격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토착적인 것은 미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우리의 전통문화나 민속문화에 대한 진지한 기독교적 성찰이 더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교회 내에는 대중문화를 무조건 배타시키고 적대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모두가 대중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고 부정적인 면을 최대한 약화시키고 제거하는 보다 능동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퇴폐문화 확산 반대한다” 마이클 잭슨 공연반대 특강

교회는 퇴폐문화를 선동할 우려가 있는 미국의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반대운동을 펴고 있다.

교회당 앞에 이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고 2부 예배 후에는 중등부·고등부·대학부·청년부 학생과 회원들이 모여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또한 중·고등부 집회 후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상진 목사의 특강도 있을 예정이다.

☞우리다락방은요 - 11교구 수지다락방

다락방 모임이 방학이란 있을 수 없어요

“안돼
요!”

계속 모여야 해
요!”

더운 휴가철을 맞아 한달간 다락방 모임을 쉬겠다고 했더니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민혜, 동준, 영민이와 유치원생인 호준이가 그럴 수 없다고 야단이였다.

4가정이 모이는 수지다락방은 남자다락방과 여자다락방이 따로 모이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모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평균 12명이 참석하는 다락방 모임은 어린이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8월의 숨막히는 폭염 속에서도 방학없이 계속되었다.

수지다락방의 모임은 매주 어린이들의 성경암송으로 시작된다. 한 주 전에 제시된 성경구절을 부모님들이 적어주면 아이들은 한 주간 내내 그 말씀을 듣고 다니면서 외우고, 다락방이 모임 때마다 암송대회가 벌어지는 것이다.

“성경암송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는 데에 유익하며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이것을 통해 글을 읽히는 데에도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히는 다락방장 최일춘 집사는 어린이들이 암송을 마칠 때마다 간단 한 사랑의 선물도 잊지 않는다.

자녀들이 이 일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생활에 적극적이지 않던 부모들까지도 믿음이 크게 자라났다고 한결같이 고백하

고 있다. 22: 6)“하신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어른들도 모임 때마다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며 겸손히 순종하기를 서로 독려한다.

최용걸 집사 · 이재운 집사 · 오민세 집사 · 전재덕 성도 가정 등 4가정

이 오붓하게 모이던 이 다락방에 최근 김광신 장로 가정과 이인수 집사 가정 이 새로 이사를 왔다. 방학도 없이 뜨거운 여름을 보냈던 이 다락방은 늘어난 다락방 식구들 덕

택에 더욱 풍성한 마음으로 결실의 계절을 시작하는 9월을 맞는다.

김명현(목사, 11 · 12교구 지도)

목회자세미나 현장에서 봉사합시다

할 일	요일, 시간, 봉사할 곳	필요한 인원
식사 재료 구입	금요일 혹은 토요일 오전	두 분 (운전 가능한 분)
강의안 편찬, 제본	토요일 오후 3 - 5시, 사무국	여집사님 두 분
교재 · 유인물 준비	주 일 소망부 집회 후, 소망부실	모세선교회원
식사준비	월요일 오전 6시 - 10시, 별관	한나, 에스더 회원
집꾸리고 이동하기	월요일 오전 9시 - 11시, 사무국	남성도 다섯 분
식탁, 강의실 의자 설치, 방송실 점검	월요일 오전 10시 - 12시, YMCA	남성도 스무 분
차량관리	월요일 오후 1시 - 3시, 5시 - 6시	남성도 여덟 분
안내(현관, 엘리베이터, 강의실)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안내위원 열 두 분
등록 · 접수	월요일(첫 두 주) 12시 - 오후 4시, YMCA	열 두 분(3인 1조 4개조)
테이프, 서적 판매 · 관리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여집사님 네 분
교회에 남아서 돕는 일(전화안내)	월요일 오후 1시 - 4시, 사무국	여성도 한 분
배식, 음료수 대접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한나, 에스더 회원
교재 · 유인물 배부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모세선교회원
식탁, 접수탁자, 교회물건 철수	월요일 오후 3시 30분 - 4시 20분	남성도 열 분
강의실 의자 철수, 청소 정리	월요일 오후 5시 30분 - 6시, YMCA	남성도 스무 분
철수한 교회 물품 정리	월요일 오후 4시 - 7시, 사무국 · 지하	남 · 녀 성도 각 세 분

* 참가문의는 최충시 장로(한국교회갱신연구원 부원장), 김명현 목사(한국교회갱신연구원 지도)에게.

■ 목회자 · 교우동정 ■

* 이종윤 목사는 4일부터 열리는 제 61회 전국여전도회 총회에서 성경강해, 5일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1세기 정책개발위원회에 참여.

* 이영훈 · 김숙화 집사(9교구, 홍마다락방) 가정은 8월 19일 득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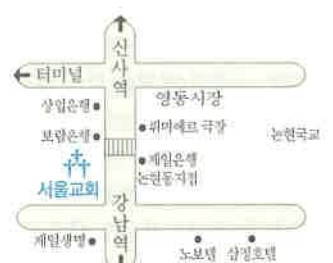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기독교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제 1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하여
2. 대중문화의 성숙을 위하여
3.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하여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